

겨울철 대설 · 한파 대응체계 구축

도, 내년 3월 15일까지... 남원 · 장수 · 임실 등에 통합관제센터 추가 구축 신속대응 가능 인명피해 위험지역 비상연락체계 강화 · 전주 등에 자동제설장치 설치 도민불편 최소화

전북도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 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방의 준비를 갖추고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사전대비기간인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 시설과 산악마을 고립 우려 지역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연화갈승, 제설삽날 등 제설자재와 장비를 시군에 비치,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주요업무의 역할에 대한 업무협약체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올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상황관리체계) 예비 특

보 시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도청 소속 현장상황관리관을 구성해 현지 파견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상황파악 등 현장 밀착형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남원, 장수, 임실 3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추가로 구축되어 전 시군 폭설상황 모니터링 구축체계를 갖춰 신속한 대응체계가 가능해졌다.

먼저,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시설, 가설 건물 등 붕괴위험시설, 산악마을 등 고립지역, 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 등을 복수 지정하여 비상연락체계 등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제설장비·인력을 사전확보

하고, 출퇴근 상황별, 도로등급별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관리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설 취약구간에 대해 기후·지형(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의 기하구조(종단경사, 곡선방경 등), 사고빈도, 교통량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제설취약구간에 선별적 제설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올해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전주 등 3개 시·군 6개소에 선진제설시스템인 자동제설장치를 설치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9.18.)됨에 따라 한파가 장기간 지

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전기매트, 장호단열 물품을 지원, 생활관리사가 평시에 주2회 전화, 주1회이상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특보시에는 일일 안전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동사방지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해 응급장 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폭설 및 한파뿐만 아니라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평소 세심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폭설시 내집안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학교폭력, 특단의 대책 절실”

도의회 이병철 의원, 5분발언서



전북도의 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21일, 제 3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뜰에 박힌 현재의 학교 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3개년도(2016~2018.9.30) 초·중·고등학교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6년 발생 589건 조치 1,636건, 2017년 발생 584건 조치 1,277건, 2018년 발생 514건 조치 727건 등 총 1,687건의 폭력발생과 3,640건의 조치가 있었다.

학교폭력 발생 유형 빈도수(3개년도 합계)로는 단순폭행이 914건으로 제일 많았고, 성폭력 275건, 괴롭힘 164건 순이었으며,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으로는 서면사과가 1,025건, 접촉금지 766건, 교내봉사 516건 순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 할 수 있는 퇴학처분도 10건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 등 학교 폭력 예방 관련 기관들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농촌개발로 신활력 더하다

전북도, 178지구에 1702억원 투입

전라북도는 2018년 농촌개발 20개사업 178지구에 1,702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환경정비, 마을 만들기 사업, 경작로 포장 등을 추진하여 ‘사람찾는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농촌개발사업은 문화, 복지, 교통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농촌 어디서나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주민체감형 생활여건을 개선해, 생활이 불편이 없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청년과 귀농·귀촌인들이 돌아오는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 소재지의 도로, 인도,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공공체 활동 지원센터 등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중심지와 인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복지, 문화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안읍 등 64개 읍·면 소재지에 788억원을 투자했으며,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지에 대규모 경지정리, 발기반 정비, 경작로 포장, 논·밭작물 재개기반 지원사업에 356억원을 투입하여 영농기반 확충과 기계화 영농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마을안길, 하수도정비, 주차장조성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작은목욕탕 등 생활밀착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자 유입을 위한 신규 정주공간을 조성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고 도시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환경정비, 마을 만들기 사업, 경작로 포장 등을 추진하여 ‘사람찾는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장터 조성, 농촌체험과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 조성 등에 119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에 역대 최대규모인 78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520억원(국비 1,064, 지방비 456)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농촌중심지 활성화 1개소 240억원, △기초생활거점 23개소 924억원, △마을만들기사업 39개소 220억원, △시군역량강화 10개소 33억, △농촌다움복원 4개소 80억,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개소 23억이다.

도 관계자는 “2019년 역대 최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도와 시·군 및 마을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2019년에도 농촌개발 24개사업 179지구에 1,736억원을 투입하여 어려운 우리지역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살기좋은 농촌, 사람사는 농촌을 만들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 도모·복지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총파업 / 민주노총 전북본부 주최 2018 총파업 전북대회가 21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 풍남문2길에서 실시된 가운데 조함원 160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도, ‘화학물질 누출’ OCI 특별점검 실시

군산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주)OCI 군산공장의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전북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OCI 군산공장에 사업화탄류가 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15년 6월 다량의 사업화탄류 누출사고 이후 올해 7월 황인 누출사고가 발생했으며, 11월 14일에는 액화질소 누출로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1월 말까지 화학사고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환경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 정밀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OCI의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여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실태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화학사고는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단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0월 전북 농수산물 수출 증가세

지난 10월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44.1% 증가한 2억 6,584만 달러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 44.1%는 전국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3.5% 증)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 9개 도부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도 차원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시장 다각화 전략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